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17 May 2004 (morning)

Lundi 17 mai 2004 (matin)

Lunes 17 de mayo de 2004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베델스만 북클럽 가입신청서

성명			책을 받아보실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책을 받아보실 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small>• 자택을 비우는 경우가 잦은 고객은 직장 주소를 기재하시면 더 빠른 시일내에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small>					
연락처 ①	() -	연락처 ②	() -	핸드폰	- -	
<u>도서코드</u>	도서명			지불하실 금액 = 6,800원 (책두권 + 배송료)		
				우편 배달 지역에 한함	입금은행	
					입금일자	
가입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격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 회원님께서 별도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경우 자동 연장 됩니다. • 회원 가입 후에는 3개월마다 우송되는 카탈로그에서 최소 한 권을 주문 하셔야만 회원 자격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더욱 빨리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책 배달 지역에 따른 도서대금 지불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 가입시 본 광고에 소개된 책에서만 2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핫라인: TEL:(지역번호 없이)1588-1949, FAX:02-3415-1313~4, E-mail:mbs@thebookclub.co.kr 					★ 베델스만 북클럽이란 ★ 저렴한 가격에 엄선된 책을 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회원제 북클럽입니다. C001018	

본문 B

추우니까 멜로 보자

가을 극장가, <뉴욕의 가을> 등 멜로에 관객 몰려

- ❶ 역시 가을은 ‘복고풍’ 멜로 영화의 계절인가. 첨단 특수 효과나 톡톡 튀는 개성보다는 정통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관객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뉴욕의 가을>이 3 주동안 21 만명, 개봉 한주를 넘긴 <러브 오브 시베리아>와 <청춘>이 각각 7 만 5 천명과 5 만명을 동원하는 등 다소 빛밋하게 보이는 러브 스토리들이 인기를 얻은 것. “날씨가 추워지면 음악은 발라드가, 영화는 멜로가 성공한다”는 문화계의 속설이 들어맞은 셈이다. 최근 멜로영화의 흥행호조는 <공동경비구역 JSA> 이외엔 별다른 문제작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같은 추세가 지난 주말 개봉한 <물고기 자리> <글루미 씬데이> <28 일 동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 ❷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러브 오브 시베리아>의 관객 중 상당수가 극장 출입을 꺼려하는 40-50 대 장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서울 스타식스 정동의 경우 <러브...>의 객석 점유율이 <...JSA>보다 높은데, 바로 장년층들의 ‘폭발적’ 반응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영화가 과거 이를 연령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닥터 지바고>를 떠오르게 하는 탓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 ❸ 반면 최근 들어 두드러진 일본영화의 침체는 여전하다. 기대를 모았던 첫 일본 애니메이션 <무사 주베이>가 개봉 첫주를 넘기지 못한 채 황급히 간판을 내려야 했고 (4 천명 동원), <으랏차차 스모부> (3 만명), <포스트맨 블루스> (3 만명) 등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올렸다.
- ❹ 지난 주 대부분의 극장에서 간판을 내린 <왓 라이즈 비니스>는 23 만 5 천명을 동원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베니스영화제 개막작이자 평단에서도 팬찮은 반응을 보였던 <스페이스 카우보이>는 한주 동안 3 만 5 천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한편 <..JSA>의 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작자 명필름은 25 일 오후 또는 26 일 오전중에 서울 관객 200 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개봉 47 일 (또는 48 일) 만의 희어로 <쉬리>의 56 일을 앞당긴 것. 상영극장 수도 현재까지 거의 줄지 않아 <..JSA> 가 어떤 신화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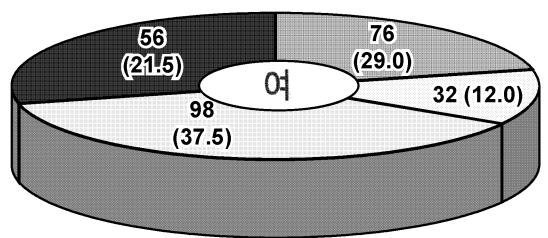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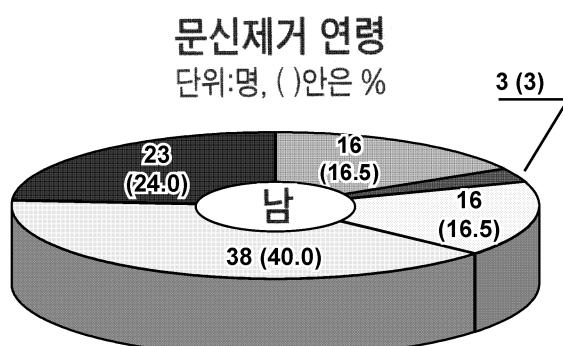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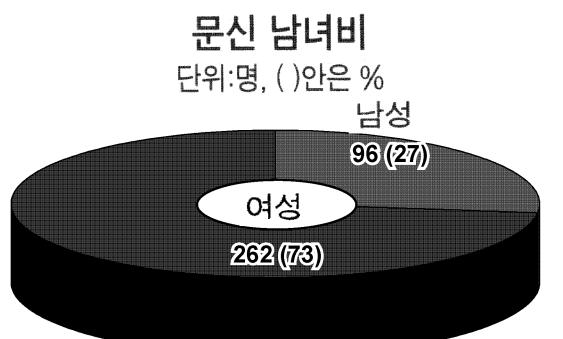
본문 C

문신

미용이든 패션이든 잘못하면 평생 후회

- ❶ 평소 눈썹 숟이 적어 불만이었던 이모씨 (여, 45 세). 지난해 동네 미용실에서 5 만원에 눈썹 문신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후회를 했다. 문신이 마치 붓글씨로 쓴 듯 색깔이 진하고, 부자연스러웠기 때문. 그녀를 더욱 곤란하게 한 것은 피부 부작용. 3 개월 후부터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더니 굳은 살로 변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❷ 최근 문신이 화제다. 축구선수 안정환의 골세리머니로 보여준 어깨문신, 병역기피자와 무자격 시술자의 무더기 입건 등 일련의 사건이 문신을 화제거리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문신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미용실은 물론 문신 전문 시술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를 공공연히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 ❸ 이에 따라 부작용이나 문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아주대병원 피부과 강원영 교수는 “어머니가 문신을 한 학생을 끌고 피부과를 찾을 정도로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대중화되고 있다”며 “위생관념이나 피부손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앞으로 문신 부작용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❹ 문신의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위생에 신경을 쓰며 1회용 주입기를 사용하는 시술소도 있지만 소독을 하지 않거나 적당히 알코올로 닦아내는 곳도 많다. 미용실에서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김모씨는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구입하는 염료 자동주입기의 경우 (23 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가격도 6 만원이나 해 반복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진피까지 침이 들어가면 에이즈나 간염에 걸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에선 인구의 2%가 C 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중 40%가 문신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❺ 둘째는 부자연스러움이다. 대부분의 시술자들이 미적인 감각 없이 자동주입기로 염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마치 붓글씨로 한일자를 그려 넣거나 선이 일정치 않고 균형이 맞지 않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김성완피부과 원장이 문신을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3 백 58 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1 백 85 명이 불과 5 년도 안 돼 문신 제거를 원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62.5 %나 됐다. 부작용과 함께 기대했던 미용효과는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 ❻ 셋째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이다. 알레르기 체질은 문신 뒤 심하게 가렵고 이물감이 생겨 고통을 호소한다. 싸구려 염료도 부작용을 부추긴다. 천연추출물의 경우 10cc 한 바이엘에 15 만-20 만 원선이지만 화학제품은 3 만원 수준이다.

⑦ 지금까지는 문신을 지우려다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담뱃불로 지지거나 양잿물 같은 강산성 화학물질을 이용해 심한 화상을 입기도 한다. 김원장은 “조사에서도 30명이 문신을 지우려다 심한 피부손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레이저가 등장한 이후 문신을 지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류지호 원장은 “색깔에 따라 루비, 앤디야그, 알렉산드라이트 등 다양한 큐스위치 레이저가 쓰인다”며 “눈썹은 1-3회, 몸은 5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문신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합 색소가 아닌 단일 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거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색소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다. 강교수는 “탈색의 원리는 레이저가 색소를 잘게 부수면 혈액 속에 있는 대식세포가 색소를 먹어치우는 것”이라며 “등과 같이 몸에 그려진 문신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은 얼굴에 비해 몸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문신 제거 위해 병원 찾은 358명 분석
자료:김성완피부과



본문 D

13년간 몸바친 직장 떠나 반찬가게 연 정호기 씨

서울 봉천동 재래시장에서 반찬전문점을 운영하는 정호기 씨. 무려 120여 가지에 달하는 맛깔스런 반찬들도 구경거리지만 남자인 그가 보란 듯이 두르고 있는 빨간 앞치마가 더욱 눈길을 끈다.

“제 삶을 바꿔놓은 앞치마입니다. 이거 안 둘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5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앞치마를 정 씨가 두르게 된 것은
 3년 전 작은 치킨전문점을 개업하면서부터다. 지난 1996년, 13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회사인 (주)제우정보는 당시 경기침체에 따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로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그도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컴퓨터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잘 나가던 회사였던 터라 동종 업체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기도
 10 했다. 하지만 연봉협상 때마다 그는 ‘부도회사 출신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결국 ‘내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1999년 시작한 것이 바로
 치킨전문점이다.

드디어 개업식날 아침. 가게에 도착한 정 씨는 일을 하기 위해 빨간 앞치마를
 무심코 손에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차마 두르지 못하고 30분 동안 명하니 서
 15 있었다. “왕년은 잊어버리자,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에 눈 딱 감았죠.” 그
 때부터 자존심은 사라졌다. 새벽에는 업소 소개 전단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낮엔
 동네 아줌마들을 찾아 다니며 넉살 좋게 병따개를 나눠줬다. 모든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 그리고 새로운 조리법도 개발하고 여러가지 홍보 방법도
 시도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하루 10마리 팔리던 닭이 150마리까지
 20 팔려나갔다. 결국 그의 점포는 당시 1300여 개에 이르던 해당 브랜드의 전국
 가맹점 중에서 매출액 ‘톱 3’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 그는 ‘금의환향’해서 치킨 가게를 처분하고 서울로 돌아와 반찬전문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퇴직을 결심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25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양복과 넥타이, 부장이나 이사니 하는 직함, 삶의 가치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